

'선다방' 있는 그대로의 떨림...서툴고 어색하지만 설렌다



우울한 표정으로 맞선을 보러 온 남성은 여성을 만나고 난 뒤 얼굴이 밝아졌다. 그를 본 이적과 유인나, 양세형 등은 "확 달라져서 나갔다"고 만족스러워했다. 지난 1일 밤 처음 방송된 tvN 새 예능프로그램 '선다방'의 마지막 장면이다.

'맞선 전문 예약제 카페'를 콘셉트로 하는 이 프로그램은 비(非)연예인들이 사랑을 찾는 과정을 그린

다. 두 남녀가 맞선을 보는 모습에 초점을 맞추고, 가수 이적과 배우 유인나, 방송인 양세형, 그룹 에스에프나인(SF9) 로윤이 카페를 운영·관리하며 맞선 남녀를 지켜본다. 이들은 '카페지기'라는 이름으로 통칭

카페지기들은 맞선 남녀만큼이나 설레고 떨리는 마음으로 "당신의 인연과 우리의 사랑을 응원한다"고 외

쳤다.

◆ 카페지기 첫 출근·영업 준비...서툴지만 즐겁다

'선다방' 제작진은 방송 시작 전, 카페지기들의 첫 만남을 먼저 보여줬다. 이적, 유인나, 양세형이 차례로 모습을 드러냈다. 실제로 처음 만나

맞선 예약 카페...일반인들 사랑 찾는 과정 그려 스펙·결과 無...판타지보다 설렌 '현실공감'

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세 사람은 "최대한(맞선 남녀들이)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했다.

드디어 카페를 여는 날, 유인나가 긴장된 얼굴로 먼저 문을 열었다. 커피를 만들고, 테이블마다 앉아 보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 다음은 이적. 그는 화사한 카페 분위기에 놀랐고 이내 문 앞에 있는 기타를 즉석에서 연주하며 들뜬 마음을 대신했다.

양세형도 연신 "좋다"며 감탄했다. 로윤도 곧 합류했다. 이적, 유인나, 양세형은 "환영한다"고 반겼다.

한자리에 모인 네 사람은 영업 준비를 시작했다. 커피를 만들고, 서빙할 답답을 정했다. 이어 맞선을 보는 예약자들을 꼼꼼하게 확인했다. 시간별로 나눠 직업과 특이사항, 목표 등을 살펴봤다. 이 과정에서 이적의 연애담도 공개됐다.

◆ 첫 번째 맞선 남녀...어색하지만 설렌다

첫 번째 맞선의 주인공이 등장했고, 카페지기들은 떨리는 표정으로

손님을 맞았다. 어색한 건 맞선을 보러 온 주인공도 마찬가지. 카페지기들은 행여나 손님이 불편해할까 봐 각자 자신의 일을 하며 시선을 분산시켰다.

맞선 보는 남성이 들어온 뒤부터 '선다방'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됐다. 두 남녀는 서로의 이름과 나이를 묻는 등 어색하지만 설레는 시간이 이어졌다.

특히 두 남녀는 연인이 생기면 하고 싶은 것에 대해 말하며 공감대를 형성했다.

어색한 단계를 지나 마음을 열고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 두 남녀 뒤로, 카페지기들의 수다도 재미에 큰 몫을 했다. "저 말은 하지 않는 게 좋았어" "마음을 연 것 같다" "두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적은 남성이 화장실을 간다며 자리를 비운 사이 기타를 연주하며 자신의 곡인 '하늘을 달리다'를 열창했다. 맞선 분위기는 한층 뜨거워졌다.

제작진은 맞선 남녀의 어색하고 초조한 분위기를 놓치지 않았다. 말을 멈추고 땀을 흘리는 것까지 담아

내, 보는 이들도 긴장하게 만들었다. 이 프로그램을 연출한 최성훈 PD는 방송에 앞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다른 연애 프로그램과 다른 점으로 "맞선 남녀를 선정할 때 홍보의 목적은 철저하게 배제했고 맞선 결과에도 집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노력 때문인지 다른 연애 프로그램보다 맞선 특유의 떨리고 어색한 분위기가 잘 전해졌다.

맞선 남녀가 느끼는 떨림을 부풀리지도, 줄이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녹였다. 무엇보다 맞선 남녀의 고민은 현실적이어서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기에 충분했다. 한 맞선남은 "일을 하느라 5년째 연애를 못했"고 했고, 또 다른 맞선녀는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간다"며 웃었다.

첫회는 철저하게 맞선의 시작과 과정에 집중했다.

카페지기들도 맞선이 진행되고 있는 순간에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며 두 사람의 시간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애썼다.

'선다방'의 주인공은 완벽하게 맞선 남녀였다. 방송 내내 맞선 남녀의 솔직한 모습을 비쳤다. 카페지기들의 대화 분위기도 맞선 주인공들의 표정에 따라 확확 바뀌었다. 어느새 시청자들도 카페지기들 때 같이 긴장하고 웃었다.

블랙핑크 'STAY' MV 1억뷰 돌파 데뷔 후 전곡 '억대뷰' 달성 대기록



YG엔터테인먼트는 블랙핑크의 기록 달성 시점에 맞춰 공식 블로그를 통해 'STAY'의 1억뷰를 기념하는 특별 축전을 공개했다.

지난 2016년 11월 1일 'SQUARE TWO'에 수록된 'STAY'는 7시간 만에 100만 뷰, 5일 만에 1천만뷰를 기록하며 뜨거운 관심을 얻었다. 1년 5개월 만에 드디어 1억뷰를 돌파했다.

'STAY'는 기타 리프와 스트링이 가미된 감성 컨트리 팝이다. '내 곁에 있어 달라'는 애절한 마음이 담겼다. 뮤직비디오는 블랙핑크 멤버들의 쓸쓸한 감성이 감각적인 영상으로 구현됐다.

블랙핑크는 YG에서 7년 만에 선보인 걸그룹답게 전무후무한 신기록을 쌓아가고 있다. 데뷔곡 '불바야'와 '마지막처럼'은 3억뷰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불장난'은 최근 2억뷰를 넘어섰고 '휘파람'도 조만간 2억뷰 달성을 앞두고 있다. 데뷔 1년여 만에 5곡 모두 역대 조회수 뮤직비디오를 갖게 된 블랙핑크가 앞으로 어떠한 세기기록을 세울지 기묘하게 주목하고 있다.

블랙핑크는 최근 새 앨범 녹음을 완료하고 국내 컴백 초읽기에 들어갔다.

블랙핑크가 'STAY' 뮤직비디오까지 유튜브 1억뷰를 돌파하며 데뷔 이래 발표한 5곡 모두 역대뷰를 달성하는 대기록을 세웠다.

'STAY' 뮤직비디오는 2일 낮 12시 40분께 유튜브에서 조회수 1억뷰를 넘어섰다. 이를 전 '불장난'이 2억뷰를 넘어선 데 이어 블랙핑크가 다시 한번 '조회수 요정'의 위력을 증명했다.

이로써, 블랙핑크는 데뷔 싱글 'SQUARE ONE'에 수록된 '휘파람'과 '불바야', 두 번째 싱글 'SQUARE TWO'의 '불장난'과 'STAY', 세 번째 싱글 '마지막처럼'까지, 데뷔 이후 발표한 5곡 모두 역대뷰를 넘어섰다.

'1박2일' 6인, 봄에도 변함없는 웃음...동시간 1위



'1박 2일' 왕곰들이 썰리 하나가 주말 저녁 웃음을 선사했다. 김준호·차태현·데프콘·김종민·윤동구·정준영 6멤버의 비상식량통 사수 대작전이 안방극장을 웃음으로 초토화시켰다.

지난 1일 방송된 KBS 2TV '해피선데이-1박 2일 시즌7' (연출 유일용/이하 1박 2일)는 전담 완도에 위치한 보길도로 떠난 6멤버의 '봄맞이 보길도 힐링투어' 첫 번째 이야기가 펼쳐졌다. 그 가운데 왕곰들이 저격

수로 변신한 6멤버의 모습이 시청자들에게 빅 웃음을 선사했다.

이 날 6명의 멤버는 힐링투어 시작과 함께 제작진에게 뜻밖의 선물을 받는다. 바로 왕곰들이 썰리 30개가 담긴 비상식량 주머니와 각자의 이름이 적힌 비상식량통. 이는 힐링투어의 마지막 코스이자 보길도와 목적을 둘러보는 11시간 올빼미 투어가 담긴 자유일정 주인공을 가리기 위한 방법으로 매 미션마다

성적이 안 좋은 멤버에게 왕곰들이 썰리가 배급된다.

특히 배급받은 비상식량통에 가장 많은 왕곰들이 썰리를 보유한 멤버가 11시간 올빼미 투어를 하게 되는데 힐링투어 동안 각 멤버에게 비상식량 선물하기가 가능한 것.

이에 제작진이 멤버끼리는 사랑을 가득 담은 왕곰들이 썰리 선물이 가능하다고 말하자 멤버들은 서로를 향한 견제의 눈빛을 보내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자유일정을 피하기 위한 한치의 양보 없는 개인전이 펼쳐지며 '봄맞이 보길도 힐링투어'의 최종 결과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이후 데프콘이 쏘아 올린 왕곰들이 썰리 신호탄과 동시에 각 멤버의 특색(?) 관광을 막기 위한 멤버들의 각개전투가 시작됐다. 6멤버는 다른 멤버가 뒷모습을 보이는 찰나의 순간을 포착, 비상식량통 구멍에 왕곰들이 썰리를 아낌없이 집어넣는 공격 본능을 발휘했다.

이 때문에 멤버들은 먹이통 구멍 사수와 함께 평소 껌딱지처럼 붙어 다니던 습관을 버리고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하이에나처럼 화장실은 공역을 펼쳐 웃음을 폭발시켰다.

이에 차태현은 "하우~ 누가 뭐기만 해도 무서워"라며 멤버들의 작은 움직임에도 움찔거리는 소심함을 보여주는 하면, 데프콘 또한 "먼저 가세요 내 앞으로 가"라며 몸소 양보의 미덕이란 무엇인가를 보이는 혼란한 모습으로 보는 이들을 폭소하게 만들었다.

급기야 1코스부터 성적 하위팀으로 낙점된 김준호·데프콘·정준영은 서로의 비상식량통을 지켜주며 동맹 크로스를 외쳤지만 이는 오래가지 않았다.

서로에게 비관만 생기면 왕곰들이 썰리를 집어넣는 '신의 손'으로 인해 유리할 같은 이들의 동맹이 시청자들을 웃음짓게 했다. 특히 '내 니어스 점' 정준영은 틀리는 내내 김준호의 비상식량통을 노리는 전담폭격기로 분해 그의 저격수 본능을 온 몸으로 입증했다.

그러나 하면 '야스' 김준호는 보길도 왕곰들이전에서 적대적소 하드캐리하며 웃음 포텐을 터트렸다. 김준호는 초반 버스 이동에서는 자리 선점으로 불운을 면했다. 앞 뒤, 옆에서 인정사정 없이 들어오는 왕곰들이 썰리 선물에 급기야 김준호는 "고마해라~ 나 할말 없었다"라고 울부짖다 돌연 "확정! 내가 섬에 가는 걸로 확정"이라고 외치는 웃픈 모습으로 시청자들의 배꼽을 잡았다.

하지만 그의 활약은 점점 북북북에서 터졌다. 멤버들의 식사를 지켜보던 차태현이 떨어진 자리에서 사라진 것 알고 보니 그는 멤버들이 전복에 빠져 방심하는 틈을 타 식당 건물 밖으로 나갔고 참된 뒤에서 손을 뻗은 채 차태현의 비상식량통에 플래 썰리를 대량 투하시키는 미친 활약으로 배꼽을 잡게 했다.

이처럼 멤버들은 얼지락뒤치락 한지 않을 예측할 수 없는 광란의 왕곰들이전을 펼쳐며 다음주 자유일정의 기쁨을 맛볼 멤버는 누가될지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높였다.

오늘의 순세 2018년 4월 3일 화요일 (음력 2월 18일)



▶**성격** 상대를 제약하려면 진심을 다하고, 계획성 있게 처세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 오, 자 성씨는 1, 8, 12월생 비위를 상하지 않게 하라. 2, 5, 9월생 동업은 시기상조다. 본인이 가진 노력파적인 면이 오히려 성공의 열쇠다.



▶**사계** 1, 2, 10월생 채우에 신경 쓸 일 있으면 빨리 해결하라. 관재수가 있겠다. 토끼, 말, 양, 돼지 마음을 헤아려주는 아량을 가지라. 사, 자, 자 성씨는 연인에게 더욱 솔직히 애정을 표현하는 것이 좋을 듯.



▶**황생해** 2, 7, 11월생 애정에 너무 치우치다 가정에 소홀해져 형제 우애에 금이 갈 듯. 봉사과 희생적인 것은 좋으나 남의 일에는 참견하지 마라. 애정과 금전 관계로 구설에 휘말린다. 하루 일을 반성하면서 조금 더 자기 관리가 필요하겠단다.



▶**정해** 동년과 가장 가까이 지내는 그 사람 마음을 읽을 줄 모르느구나. 용, 양, 개미인 사람에게 더욱 신경을 써야 할 듯. 삶이 힘들다고 불만을 품는 것은 금물. 현 위치에 만족하고 서서히 앞으로 나아가라. 4, 10, 11월생 노란색이 힘이 될 것이다.



▶**음미** 4, 6, 10월생 주변 사람과 의논해 서로 협조하고 이해하며 일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변동하려는 사업은 한쪽 일이 풀릴지 않아 마음만 아프나 쥐, 토끼, 돼지 등 도움을 받으면 큰 힘이 될 듯.



▶**진해** 어떤 일든 속단하지 말고 계획이 완전히 성립한 뒤 변동할 것. 생각을 넓게, 행동을 과감히 하여 날개를 활짝 편 날 수 있다. 연인에게 너무 연연해 하지 마라. 세월이 약이듯 시간이 해결해준다. 1, 2, 4월생 나이 차이와 직업 때문에 서로 갈등할 듯.



▶**정미** 하는 일로 인해 갈등이 크겠다. 동업자가 있다면 그 사람과 뜻이 맞지 않을 듯. 그, 너, 사, 오 성씨를 함부로 대하다 크게 후회하게 될 듯. 다른 각도로 내 위치를 봐야 할 것이다. 현재가 다 아니니 미래를 생각하라.



▶**정미** 1, 4, 6월생 지나치게 신경을 쓰다 신병이 올 수 있으니 평소 건강에 유의할 것. 나를 너무 과시하는 행위는 오히려 나를 초라하게 만든다. 겸손함과 봉사심을 배워야 한다. 자식 과잉보호는 금물.



▶**음유해** 그, 너, 자, 자 성씨는 안 되는 것을 잡고 있지만 말고 과감히 변동하라. 길이 있다. 7, 8, 9월생 파란색 옷이 용기를 불어 넣어주는 원동력이 될 듯. 뱀, 뱀, 돼지띠 연인이 귀인일 듯하니 행동을 신중히 하라.



▶**정미** 5, 10, 12월생 지혜를 얻어 다시 도전하라. 길이 많이 있다. 풀리지 않던 일이 서서히 좋아진다. 대인관계를 폭넓게 갖는 것이 좋겠다. 소, 토끼, 양, 돼지띠 남편에게 불만과 고민이 많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하라.



▶**정미** 1, 8, 10월생 주고받는 데는 영수증이 꼭 필요하다. 용, 원숭이, 돼지띠와 의견 충돌 조심하고 웃음이 헤븐 사람은 화를 잘 낸다는 것을 유념해 상대방을 대하라. 그, 사, 자 성씨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지지 애인과 자주 접하라.



▶**정미** 그, 오, 증 성씨 직장과 가정은 한꺼번에 신경을 쓰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으니 몸도 생각할 것. 자식 걱정이 크겠지만 그들의 뜻대로 말하라. 투자했다 손해를 보더라도 시간이 되면 해결될 듯. 부부는 동만의 시간을 자주 갖는 것이 좋겠다.